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작년 전 겨울이었던가, 서울 중랑천에 원앙 200여 마리가 때로 나타났다고 많은 매체들이 화려한 원앙 때 사진을 앵다투어 연일 보도한 적이 있었다. 원앙이 때로, 그것도 200마리가 넘게 때를 지어 나타난 일은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전문가들의 입을 빌렸다. 모두 '세계 최초'를 앞세웠다. 그런데 그 세계 최초에 세인들은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은 듯했다.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그 '최초'를 보았느냐고 물어보아도 그 보도를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래전 강길 신리 길을 걸어 출퇴근할 때였다. 강물을 지적에 둔 길이었다. 길은 차가 다닐 정도로 넓게 나 있었지만, 풀과 나무가 너무 오래 자라 있고, 또 그 길을 이용해야 할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2년 동안 차도 걷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다. 이슬 때문에 나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서 긴바지로 바꿔 입어야 했다. 어느 날 강물이 쉬어 가는 소(沼)에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물결을 일으키는 그 물체(?)는 등과 머리를 드러내 놓고 해엄을 치고 있었다. 오싹 겁이 나고, 혼자 놀래

어쩌다 마주친 새들의 눈

주위를 둘러보았다. 용이 못된 구렁이가 우리 마을 근처 큰 호수(그 용소가 지금은 없다.)에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수달 두 마리였다. 수달을 너무 오랫동안 본 것이다. 출근해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우리나라에 수달이 멸종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신문사로 전화했다. 기자님은 수달이 멸종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못 박았다. 나는 아침에 분명히 수달을 보았다고 한 번 더 말했다.

원앙 때가 서울 중랑천에 세계 최초로 200여 마리가 나타났다는 그 기사의 화제 성에 내가 놀랐던 것은, 지난 3-4년 동안, 수달이 나타났던 그 강에 원앙이 208마리 정도까지 날아와 한겨울을 지나다가 갔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208마리 정도라고 그 숫자를 거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나고요? 사진을 찍어 세어 보았으니까요. 어떤 해는 청둥오리 때와 원앙 때가 마을 앞 강을 가득 메우고 '천란'하게 먹이를 찾아 먹기도 했다.

3년 전부터는 흥 머리 오리들이 외진 강물에 와서 살다 간다. 작년과 올해부터는 댕기원죽지 오리 여러 마리가 강물에서 놀고 있다. 청둥오리, 비오리, 호사비오리는 철새다. 호사비오리는 멸종 위기 새다. (이 오리에게 송 초면 쪼개 벌 받는다.) 논벼아리와 쇠오리, 쥐오리는 토종 오리다. 토종 원앙도 몇 마리 산다. 어떤 해에는 물닭, 깃털이 우아한 호방 오리도 왔다 갔다. 참, 내, 원, 몇 년 전부터 가마우지도 온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가마우지가 우리 마을 산전하고

어울리지 않게 너무 겁고 커서 정서적인 불쾌감과 거부감이 있다.

우리 마을 앞 강에 와서 한겨울을 나던 원앙 때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새 연구가 한 분이 남원에 사신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원앙들은 기온이 자기들에게 맞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걷다가 길가 숲에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새가 그 작고 까맣게 환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작고 선명한 눈을 보고 하마터면 울 뻔했다. 그렇게 겁 없고 작고 선명한, 아름다운 눈을 처음 마주친 것이다. 며칠 전 흰 댕기 죽지 오리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또 놀랐다. 또, 정말, 진짜로, 참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테두리 속에 눈을 두고 있다니, 검은 바탕에 그 작고 뚱그랗고 또렷한 눈가 테두리는 놀랍게도 노란색이다.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눈이 서늘하여서 하마터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 버릴 뻔했다.

나는 나만 외롭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새들의 경이로운 생태와 태도들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에게 말해 보았자 사람들은 새들의 선명한 눈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어쩌다 새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어디서 읽었던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이 글이 생각나곤 한다. '칸트는 참으로 선명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의미를 잃지 않은 이유다.' 선량은 눈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종교칼럼

믿음생활의 삼근기(三根機)와 지도방편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않는다. 어른의 권위를 내세워도 통하지 않는다.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이때는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기호에 맞춘 노리개나 먹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떠쓰는 아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비록 나이는 성인이라도 그 지견 정도가 하근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사리와 경위가 통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형상물(totem)을 내세워 믿게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유도해 갈 수 있다. 먼저 우상이나 형상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라 믿게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증생들의 욕망에 맞추어 기복 신앙심에 불을 붙이는 방편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정법(正法)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생들의 어리석음만 더욱 가중시켜서 영원히 미로(迷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법 제도(濟度)의 길을 막는 일종의 죄악이 될 뿐이다. 그러하거든 여기에 겹쳐서 어리석은 마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려는 생각까지 갖는다면 이중 삼중의 죄업을 짓는 일이다. 빛을 짓는 일이라 참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유혹이나 현혹에 걸코 빨려 들어가서도 안 된다. 스스로에게는 어리석음에 매몰되게 큰 후회를 낳고 상대는 큰 죄업을 짓게 하는 결과까지 낳는다.

중근기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소년기에 이르는 시기와 같아서 사리에 따라 경위로 타이르는 말이 통하지

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른의 권위에 깊이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이치의 원리를 따라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는 가장(家長)의 권위를 심분 활용한다고 한다. 즉 가정이 앉는 의자에 평소 시트를 덮어 두어 존엄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이를 자녀 교육에 활용한다고 한다. 부모든지 아니면 우주의 근원자에 대한 권위를 내세워 의미를 부여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믿음을 유도하면서 점점 그 지각이 열려가게 한다. 그리하여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 권위자, 즉 유일 절대자, 창조주, 아버지, 왕 등을 상징적으로라도 내세워 신앙을 대장화하는 신앙이다.

다음으로 상근기는 소년이 자라서 스스로 어른이 되면 이치에 따라 사물의 경위가 흰기 모이므로 어른의 권위로 지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아무리 어른이 하는 일이라도 잘잘못을 가려낼 줄 안다. 그리하여 더욱 성숙해지면 이미 명상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는 마음으로 자리한다. 이 진리 당체를 믿는다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천차만별이다. '우주 만유 속에 진리 실상이 내재되어 있거나'하는 가상을 갖고 있는 믿음에서부터, 불생불멸(不生不滅)과 인과보응(因果報應)까지 어김없는 줄 알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알아 갖게 되는 믿음을 상근기 믿음이라 한다. 이쯤 되면 말과 글이 필요 없고 형식과 틀에 묶이지도 않으며 진리, 스승, 교법, 회상과 하나되어 심심상연(心心相連), 법법상법(法法相法)으로 자비경륜의 실현을 한없이 펼쳐 간다.

기고

그린란드와 식량 주권



오성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더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곡창지대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면 많은 나라들은 식량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농지를 확보하고 통제하느냐'는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많은 경우의 수에서 그린란드는 어쩌면 새로운 곡창 지대로의 가능성을 평가받은 것은 아닐까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더 이상 환경 보호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식량 주권이라는 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량 주권은 국민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 생활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이미 미래 식량과 자원 확보를 위한 '영토 경쟁'에 돌입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 49.0%, 곡물 자급률 22.2%에 불과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첫째, 기후 변화에 강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기후 변화에 강한 작물 품종 연구 및 보급 확대,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투자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농지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국가가 해외 농지를 임차하여 식량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략 곡물(밀, 콩 등)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농지 보호 및 친환경·지역 농산물 생산 확대 등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협력과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와 식량주권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슷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농업만으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프라 및 각종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식량 주권의 제1선에서 위치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제대로 된 애우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불러올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와 생존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늦추는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의존하는 식량 공급망이 타국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 기후 위기를 생존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의정갈등 1년... '응급실 뺑뺑이' 현실화 우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호남의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조차 응급실과 수술실의 쪼टा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필수 진료과인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전임의(펠로)들의 이탈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1년 동안 근무하던 전임의 35명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일인 지난 6월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전임의가 1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전임의는 3명씩으로 필수 진료과인 두 과의 이탈 인력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마취과 전임의가 부족하면 당장 수술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마취과 8명이 각 과마다 시간을 배정받아 수술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줄어 들면 최악의 경우 응급수술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응급실은 전임의들이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인원을 줄이는 구조라 붐그 직전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인력을 풀가동해 근근이 버텼는데 전임의 이탈로 앞으로는 타 지역처럼 1주일에 하루씩 응급실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양부남 의원 자료를 보면 이번 설 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실 재이송(뺑뺑이) 96건 중 광주주는 0건으로 전남대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의 사명감이 어땀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상태라면 광주에서도 재계약 하지 않은 전임의들이 이탈하는 3월부터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나서 의정 갈등 해법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이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광주시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관내 병원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흑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논란 키운 시의회

광주시의회가 그제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 100세대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속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며 "이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또한 어제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광

주시 용적률 관리방향 연구' 과제를 광주 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무엇이 그리 시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조례 개정안이었던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 수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된幢중도와 강남로, 상무지구 등 중심상업지구 활성화 위해 주거시설을 늘리는 것만인 능사가 아닐 것이다. 광주시 현행 주거정책과 역행하는 시의회의 개정안은 되레 미분양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의 미래 도시공간을 좌우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재발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라운드 시간은 참 빠르다. 시즌이 끝났다 싶으면 이내 개막을 앞두고 있고, 개막했다 싶으면 시즌이 끝나곤 한다.

한국 프로야구는 3월 22일 2025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KIA 타이거즈를 비롯한 KBO 10개 구단은 미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비활동 기간 변경으로 올 시즌 준비가 빨라졌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였던 비활동 기간이 1주일씩 앞당겨지면서 1월 25일부터 스프링캠프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어바인에 캠프를 마련한 KIA도 1월 25일부터 연패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시즌 1위 질주를 한 KIA는 스토브 리그에서도 가장 뜨거운 팀이었다. 성대한 우승 잔치를 벌였고 선수들은 역대급 흥행 속에 두둑한 배당금과 함께 구단의 보너스까지 받았다. 연봉 흥풍도 불었다.

여기에 캠프 선수단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이선 회장의 특별 대우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 10시간의 비행이 짧게 느껴졌다는 선수단. 외야수 이창진은 "당장 경기를 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

었다"며 비즈니스석 효과를 말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 컨디션 관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던 KIA는 그 효과를 확실하게 봤다. KIA는 출국길에 공항에서 LG 선수단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두 팀이 같은 비행기로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서 같은 비행기 다른 좌석에서 우승이라는 '동좌이몽'이 펼쳐졌다.

캠프 현지인 어바인은 캘리포니아의 소문난 부촌으로 KIA는 KBO 구단 사상 처음으로 이곳에 캠프를 꾸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 우승의 열매는 어느 때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많은 투자와 기대 속에 KIA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각자 다른 겨울을 보냈고, 다른 곳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10개 구단의 목표는 같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땀을 흘리며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컵이 됐든 모든 구단은 우승을 꿈꾼다. 우승의 시작점은 스프링캠프다. 개막이 아직 한 달여 가량 남았지만 그라운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